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10, Vol. 16, No. 3, 311～329.

상담자의 어른역할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 방식'에 기초한 보고 형태-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문화권에 따라 상담자의 역할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서구의 수평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편이지만, 동양권에 속하는 수직적 권위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내담자의 사회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는 상담자가 치료자 역할 이외에 교육자 내지는 양육자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편이다. 한국적 상담 모형으로 제기된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상담의 현재화'와 '상담자의 어른역할'을 양대 기본 골격으로 꼽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어른역할'이 실제 상담 사례에서 어떠한 상담성과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방식'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 방식'은 질적 연구의 한 방안으로서 내용을 축약할 수 있는 간결성과 진행에 대한 해설로 인해 상담 사례를 연구할 때 원자료를 제시하는 축어록 방식보다는 유용하다고 본다.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는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안된 현실역동 상담의 특성들인 문제의 실체파악, 심정 헤아리기, 외부현실 강조, 역할 중시. 직면 활용하기, 부모-자녀관계 강조, 사회성 촉진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사회성, 양육자, 어른역할, 이야기 방식, 현실역동 상담

---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2010년 교비연구의 지원에 의함
† 교신저자 :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Tel : 016-232-0403

현대 심리학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심리학의 제 4세력으로 등장했다(Pedersen, 1991; Sue & Sue, 1999). 그리하여 그동안 심리학의 향배를 주도해왔던 미국이나 유럽의 심리학자들도 이제까지의 문화배타적(culture-exclusive)인 의미로서 개인이 아닌, 문화포괄적인(culture-inclusive) 존재로서 개인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게 되었다(Shweder, 1991).

그런데 아직 응용분야인 상담심리분야에서는 범문화적 관점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문화적 차이가 가장 예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의 이런 현상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할 문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상담자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내담자의 자율성을 위해 상담자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 상담자가 어른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담목표의 설정 및 접근방식의 채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겨왔다. 가령, 정신분석적인 통찰지향의 상담을 실시할 때는 상담자가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지지지향의 상담을 실시할 때는 상담자가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앞세워 상담자가 가급적 뒤로 물러선다. 반면에 행동치료나 인지적 치료에서는 상담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주요 상담접근들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담자의 선택 및 자율성을 강조한다(Corey, 2009). 다시 말해, 기존의 주요 상담이론들은 모두 서구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개인주의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 그리하여 이 상담접근들에서는 상담자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담자와 동등한 선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드러난 상담자의 역할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아니냐하는 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일지라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담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지도편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고 본다. 한국문화권에서는 상담자가 심리치료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방향을 잡아주고 일러주는 어른으로서 취급되곤 하기 때문이다(장성숙, 2000).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시된 현실역동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으로 삼는 상담자의 어른 역할을 실제 상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권에 따라 가장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상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찰은 문화비교 연구와도 연결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상담사례에 대한 예시 방법은 질적 연구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이야기 방식(narrative methods)'에 의한다.

상담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

상담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던 1950~1960년대만 해도 우리사회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여파로 우리 전통문화의 대부분은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했다. 특

히 사람들은 혈연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서열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을 발달시켰다(장성숙, 2007). 이런 연유로 인해 한국인은 '우리성'이라는 특성에 젖어있는 반면, 개인의 권익을 강조하는 '홀로성'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self)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체성을 존중하는 상담에 매료되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담 및 심리치료는 한국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인지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간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심심치 않게 혼란을 겪곤 한다. 드러난 양상은 각기 달라도 그 본질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와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사이에서 겪는 마찰이다. 뿐만 아니라 적응을 확립하기 위해 '나'의 솔직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와 화합하기 위해 자신의 솔직함을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그리하여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조언을 구하기 일쑤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억압을 풀고 자기의 솔직한 목소리를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담이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그렇게 응수하는 것이 과연 내담자의 적응을 도와주거나 또 내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되짚어볼 일이다. 많은 경우 내담자가 실제 생활에서 오히려 더 부적응하거나 아니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 상담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양의 내담자들은 문제를 풀어갈 당사자가 본인들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한국의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한국 내담자들의 태도에 대해 의존적이라고 지적하며 바꾸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왜 상담을 받으러 와서 상담자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또 상담자가 어떻게 해줄 때 내담자의 만족도 내지는 상담성과가 증진되는지 살펴볼 일이다. 상담은 개인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적응을 도모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다분히 수직적인 서열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수평적 관계에 익숙한 서양의 내담자들과는 달리 분명히 다른 기대를 하는 편이다. 서양에서도 문제해결이나 단기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이나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동안 내담자의 이러한 태도를 미성숙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다.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를 서구사회의 관점이나 잣대로 평가해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서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우리성

이라는 집단교류의 의식에서는 집단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분 서열적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어른이 바로 이 역할 조정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왔다(최봉영, 2007).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어른이 권력의 행사자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사회에서는 어른이 단순이 조직집단의 상위자나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성을 유지하고 구현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한규석, 최상진, 2008),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는 어른을 숭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성숙한 사람의 과제가 자기실현이지만, 우리사회에서의 성숙한 어른(큰 어른)은 스스로가 큰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최봉영, 2005). 일상생활에서 어른의 대표적인 존재는 부모이며 스승도 그 반열에 끼이는 인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상담자도 그 선상에 놓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담을 받으러 와서 상담자에게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상으로 부모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즉, 일찍이 부모나 스승이 못 다한 역할을 해주는 신종 전문직의 어른으로 상담자를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어른에 대한 겸양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설사 이럴 경우라 할지라도 내담자의 수준이 아직 의존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상담자는 스스로 하라며 내담자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존에 대한 욕구가 탐닉에 기인했다기보다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면 충분히 의존욕구를 채우고 나야 자발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충분한 애착을 경험한 자라야 분리도 잘 할 수 있듯이 섣부른 독립은 도리어 성장을 지연시키고 만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자가 지나치게 서구사회의 가치에 편향되어있으면 도리어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우리사회의 문화에 예민한 눈을 갖고 내담자에게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줄 때 상담성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이상적인 어른의 상은 엄부자모(嚴父慈母)로 대변된다(장성숙, 2002). 엄부자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추상같은 호령을 하기도 하고 자애로운 태도로 품어주는 모습을 일컫는다. 그리하여 상담자도 어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 그러한 태도를 내담자에게 취할 수 있어야 하리라 본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상담자는 심리치료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 방식'에 대한 이해

철학에서 분리하면서 심리학은 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서 심리학에서의 연구방법은 인과적 관계 중심으로, 일반화 중심으로, 법칙 중심으로, 수리 중심의 양화연구로 바뀌었다(장성숙, 2009, O'hear, 1989). 이렇게 하여 타당화시키기가 어려운 대상은 연구에서 도외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심리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지녀야 할 본

래의 가치는 축소되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심리학이 방법론적인 틀을 너무 엄격하면서도 협소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과학적 발전은 이룩했을지라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본다(이정모, 2009)

심리학에서 연구방법의 전형으로 삼고 있는 방식은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험론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방법이다. 그리하여 심리학에서는 이론적 가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영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 확률에 의해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고집하고 있다(Schmidt, 1996).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연구방법은 오늘날 실용적 차원의 설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Salmon, 1989). 그러므로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포함하는 설명이나 이론 즉, 양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연구를 비과학적이라며 과학에 대해 지녔던 경직된 신화적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Bickhard, 1992).

이렇게 경직성을 띤 자연과학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해석학적 모델이다. 이 대안적 모델에서는 규범 법칙적이 아니라 개체 특성적이고, 양적 방법보다 질적 방법이 주방법이고, 숫자로 환원하는 통계적 해석보다는 언어적 해석이 강조되고,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우선시 된다. 이러한 해석학적 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질적 방법으로는 비구조화 면접법, 담화분석법, 대화분석법, 직접관찰법, 일기/생애분석법, 민생법, 역할기법, 공조탐구법, Q방법 등이 있다. 그리하여 근간에는 이런 연구방법들에 의해 그동안 양화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인문사회적인 심리현상들이 연구주제로 소생되고 있다(Lieblich, McAdams, & Josselson, 2004).

대안적 방법으로 제기된 질적 연구방법은 인문학에 가까운 것으로서 아직은 세련화, 체계화, 확장의 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심리학이 확립하고 있는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훼손하리라는 생각은 인식론적으로나 과학 철학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이정모, 1995a, O'hear, 1989). 인간행위로서의 심리현상은 결정론적 원리보다 오히려 목적론적인 이야기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자의 관심은 법칙에 대한 발견보다 상황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에 두기 때문이다(이정모, 2007).

특히 상담심리에서 다루는 수많은 심리현상은 통제나 조작이 어렵다. 대부분의 심리현상은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로 포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실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많은 양적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곤 한다. 더욱이 총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담심리학의 실무(practicum)에서는 실용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중시하므로 실증주의적 원리에 기초해 얻은 단편적 지식들은 한계를 보인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많은 상담학도들은 실제적 가치가 적은 연구에 대해서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무에만 주로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실무중심의 상담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활동을 기록하는 식의 축어록 방법(protocol methods)이다. 축어록은 실제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내용을 상담자가 발췌하거나 아니면 주고받은 대화의 전 내용을 기록해 제시하는 상담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을 지도

감독자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읽고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며 상담에 대한 실무능력을 배양시킨다.

그런데 원자료(original text)를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은 주고받은 즉, 언어화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독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사례를 지도 감독해 주는 전문가 즉, 슈퍼바이저의 해설이 곁들여져야 축어록에 함축되어있는 의미가 파악된다. 축어록은 원자료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나 함축된 의미가 묻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이러한 상담사례 축어록의 한계를 보안하는 방안으로 사례의 내용에 대해 상담자가 축약하여 기술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식의 '이야기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장성숙, 2009). 질적 방법의 하나인 이 방식은 축어록 방식에 비해 간결하면서도 완결된 이야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야기(story) 엮기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즉, 마음의 구성적 특성은 이야기 스키마로서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치는 각종 경험, 사건, 개념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엮어내는 인지적 틀(frame 또는 schema)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 기억,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산출은 삶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다시 말해, 마음의 원리는 이야기 원리로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 기초하여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친숙한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삶에 가장 익숙한 이야기에 바탕을 둔 '이야기 방식'은 연구자가 상담사례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이나 의미에 대해 해석적 서술을 전개시켜가는 형식이다. 형식적으로는 보고자가 틀이야기(frame story)의 지평과 속이야기(inside story)의 지평을 넘나드는 이종화자(heterodiegetic narrator)로 기능하며 텍스트(text)를 구성화하고, 내용적으로는 텍스트의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례의 내용과 의미를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를 띤다. 여기에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담사례에서의 주호소, 원인, 과정, 결과 등을 기술할 때 기계적 형태의 나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도한 바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조직하고, 또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납득을 도모하기 위한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야기 방식'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친근함을 느끼는 사고방식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auconnier & Turner, 200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하위목표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산만한 것을 압축한다. ② 총체적 통찰력을 달성한다. ③ 중추적 관계를 강화한다. ④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⑤ 다수에서 하나로 진행한다.

'이야기 방식'의 효용성은 독자가 이룩하는 납득의 정도와 비례한다. 납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합목적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핵심이 되는 문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정연하게 기술한다. 여기에다 연구자가 객관적 사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상으로 내담자의 반응이나 변화에 저촉을 받아 일어나는 자신의 심적 작용을 첨가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깊이 있는 이해는 지적수준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이야기 방식'을 채

택할 때 내담자에 대한 기본정보, 과정에 대한 기술, 변화에 대한 조명, 완결성 등을 실감나게 구성하는 탄탄한 기획성, 그리고 관찰 및 분석을 받혀줄 수 있는 서술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것을 적절히 구비할 때 이야기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야기 방식'이 갖는 타당성은 의미에 대한 전달력의 유무로 판단하며, 그 외의 세세한 글쓰기에 대한 수칙은 자칫 감흥의 정도나 납득의 정도를 떨어트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의 생명인 교감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서술(description)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상황을 기술하는 연구자의 세계관이 어떤 강약의 리듬을 타고 전개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방식' 자체가 지닌 문학성 때문에 학문세계에서 강조하는 객관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 방식'이 갖는 문학성은 약점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과학성의 한계를 보안해주어 의미를 훨씬 풍요롭고 윤택하게 확장시켜준다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의 틀은 너무 경직되고 비좁다. 그러므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범위는 이제 과학을 넘어서 문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본다.

상담의 실제

다음은 1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러 온 교사에 대한 상담사례다. 총 상담회기는 38회기였는데 여기서는 34회기까지의 내용을 '이야기 방식'으로 축약하고 해설한 것이다. 주축이 되는 이야기의 내용은 자신감이 없어 힘들어하는 내담자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관한 것인데, 특히 상담자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역할하였는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상담자는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자모(慈母)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엄부(嚴父)로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다.

30대 초반의 고등학교 여교사는 남자친구와 사귄 지 10년이 되었는데 결혼을 할 자신이 없어 계속 미루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왔다.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유부남은 누군가에게 인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더 근사하게 보일 정도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한결같은 그 친구 덕분에 그나마 사람을 믿게 되었다며 그와 헤어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첫 사랑인 그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결혼할 엄두도 나지 않아 결혼을 미루어왔는데, 이제 나이도 들만큼 들었고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담자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자신에 대해 못 마땅한다고 했다(1회기).

내담자는 유치원 교사였던 어머니와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아버지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고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내담자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아버지는 도시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며 소를 키우겠다고 시골로 내려갔고, 유치원 교사였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겠다며 도시에 남는 식으로 양 부모는 일

찍부터 서로 떨어져 살았다. 현재 60대 중반인 아버지는 여전히 농촌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어머니는 퇴직 후 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인 컴퓨터교실에서 강사로 일하며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 그동안 목돈이 들어가는 교육비는 아버지가 댔고 생활비는 어머니가 담당하는 식의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롯해 여러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특히 경제력이 약했던 할아버지로 인해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 반면에 어머니는 엘리트였던 생부가 행방불명이 되자 친정어머니가 어린 두 딸들을 데리고 다시 시집을 가는 바람에 계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깔끔하고 야무진 도시풍의 여성이었던 어머니는 월북했을지도 모를 생부로 인한 연좌제,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재혼 등 집안에 대한 콤플렉스로 힘들어 했으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조건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 이후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두 사람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싸웠다. 원가족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떠맡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못마땅해 했고, 아버지는 그러한 어머니를 퍽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야심차고 엄격했던 어머니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두 남매가 공부를 잘 한다는 사실이었다고 한다. 내담자로서는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근근이 생활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내담자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수석을 하였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좀처럼 그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가까스로 명문 대학에는 입학을 하였으나 부적응인 생활은 계속되었고, 교편을 잡은 현재에도 불안 및 위축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력을 지닌 내담자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미룰 만큼 취약했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는 '나'에 대한 확립이 되어있지를 않아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취학 전에는 양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다투는 틈새에서 성장했고, 취학 이후에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리하게 공부를 하느라 신경증을 앓기도 했고, 명문대학에 가서는 주위 친구들에게 위축감을 느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동료들 사이에서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내담자의 저변에는 다른 무엇보다 자유롭고 쾌적하게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신감의 미비로 외현 적으로는 불안해하는 형상이지만, 내면 깊숙이에는 눌린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그것을 희석시켜내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상담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해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자기 할 소리를 할 수가 있겠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왜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고, 나아가 현실에서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식의 상담을 하기로 했다(3회기).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12회기까지는 그런대로 상담시간을 잘 지켰지만 그 후부터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하며 잦은 결석을 하는 등 저항을 보였다. 그리하여 12회기부터는 15회기까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다 아프고 나서 다시 상담자를 찾은 16회기부터는 즉, 상담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면서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안정된 상담관계를 확립하면서 점차 직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대상이었던 어머니에게 조금씩 자기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좀처럼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은 극복되지를 않았다.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남자친구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결혼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격이 강한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 절절 맸던 내담자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상담자의 눈에는 내담자의 가족생활 형태가 이상하게 보였다. 설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일찍부터 떨어져 살았다할지라도 자식들이 다 크면 어떻게든 그러한 양 부모를 함께 살도록 주선하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내담자나 남동생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직 어리다면 몰라도 다 큰 입장에서 그렇게 부모의 생활 형태에 대해 무심한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 더구나 노인이 된 아버지를 시골에서 홀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이상으로 관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문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직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동료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를 변화시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에 상담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재된 분노를 풀어주고 자기주장을 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 상담을 실시했다. 그러나 내담자가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상담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자, 상담자는 심리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 것이다. 즉, 실제 생활이 영위되는 현실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기저가 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상이 너무 약해서 자신감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회생활을 할 만큼 다 큰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18회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떨어져 사는지는 몰라도 자식 된 입장에서는 생부와 생모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살도록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이 다

큰 자식으로서 응당 신경 써야 할 책무이며 도리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다운 역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담자는 상담자의 간곡한 말에 당황해하기보다 의아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서 간혹 방문이나 하며 지냈기 때문에 으레 그러려니 하며 지내는 것이었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함께 사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

그것이 이제 와서 가능할까요?"(18회기)

이렇게 반응하는 내담자에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말벗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측근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더구나 아버지는 60대 노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필히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상담자는 말했다(18회기). 그러니 어머니에게 이제 자녀들이 다 컸으니 도시생활을 접고 아버지에게 가서 생활을 하시게끔 설득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고 난 다음부터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언급을 해보았는지에 대해 틈틈이 확인을 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반응하던 내담자도 납득을 하였는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22회기).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소 당황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란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다시 말하기를, 대체로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의존할 양으로 나이 들어갈수록 딸보다는 아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는 편이니 남동생을 설득해 그가 어머니에게 말을 하게끔 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22회기).

그리하여 내담자가 남동생에게 말을 했더니 남동생도 처음에는 누나가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의아해하더란다. 그러나 남동생도 누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겼는지 마침내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꺼내더란다(23회). 아들이 양 부모의 거취문제에 대해 말을 하자, 딸이 말할 때와는 달리 어머니가 몹시 당황해하며 "언젠가는 그래야겠지……."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 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그냥 지낸다고 했다(23회).

추석명절을 며칠 앞두고 내담자는 여느 때처럼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러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암수술을 받게 되어 바빴다는 말을 했다(28회기). 아버지의 암수술이라는 말에 나는 '아이쿠, 염려하던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되어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느냐며 언제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2년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최근에 악성으로 판명돼 이번에 레이저수술을 받으신 거예요."(28회기)

이러한 말을 하며 내담자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가볍게 응수했다.

이러한 대답을 듣는 순간 오히려 놀란 사람은 나였다. '아니, 그동안 암일지도 모른다는 위태위태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아

버지를 그냥 시골에 혼자 내버려두었단 말인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써늘함이 엄습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 호되게 직면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곧바로 반응했다.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비정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지경인데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말의 음색이 싸늘했는지 내담자는 당황해 했다.

"……. 이번에 집에 가서는 어머니를 잘 구슬리어 아버지와 합치는 건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간곡하게 다 큰 자식으로서 부모의 거취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않았는데 마침 이때다 싶었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가장 독한 단어를 골라 응수했다.

"어머니를 구슬리려고 굳이 애쓸 것 없어요. 아버지에게 적신호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골에 혼자 내버려두었다는 것을 알고 상담선생님이 나를 짐승 취급하더라는 말만 어머니에게 전하세요."

이러한 상담자의 말이 떨어지자, 내담자는 부끄러움 내지는 당혹스러움에 귓불까지 빨갛게 물들였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울먹이는 내담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던 상담자도 침묵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하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이 지닌 이기심 앞에서 회의내지는 비애가 묵직하게 엄습했다.

서로 말이 없는 가운데 20~30분 정도가 흘렀던 듯하다. 사실, 사람 사이에서 오고갈 수 있는 최악의 말을 상담자는 한 것이고, 내담자는 들은 것이다. 사람을 짐승취급하는 극단적인 말을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는 참담한 심정으로 입을 떼지 못했다.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상담이 종료되기 전에 그래도 내담자를 그런 상태로 돌려보낼 수는 없겠기에 상담자는 말문을 열어 내담자를 풀어주고자 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이미 노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병마에 쓰러질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렇게 홀로 사시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약혼자인 남자친구가 아직은 젊어서 뭘 모를지라도 나이가 들면 장인을 방치한 장모를 똑바로 바라보겠느냐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 거두기 싫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면 된다고 아내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 하나를 터주었다. 이미 만정이 떨어진 상태라면 뒤늦게 함께 산다는 것도 고역이다.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것이 비윤리적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즉,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저버리기가 어렵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준 것이다(28회기).

사실, 내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에서 따로 떨어져 사는지 상담자는 물론 내담자 자신도 잘 모른다. 양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식

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함께 지내도록 묶으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식들의 욕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쇠했어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또 선택권이 있는 법이다. 그것을 도리라는 이름을 앞세워 짓밟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 큰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 있는 거리를 관망이나 하며 지내는 것도 불효막급한 일이다. 그것은 방임으로서 자식 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식은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 사이에 놓여있는 간격을 좁히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봐야 무엇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지가 드러난다.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다행이 그런 것 없이 습관상 떨어져 사는 것이라면 부모가 합치는 것은 의외로 쉽다. 설사 타개하기 어려운 별거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다.

상담자의 간곡한 설명에 내담자도 마음이 풀렸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전히 얼굴은 붉게 물들어있었지만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 곧이어 내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을 나서면서 내게 추석인사라며 마련해온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이것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가까이 있는 아버지는 챙기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사치레를 한다고 흉을 보시겠지요?"라고 내담자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28회기).

"그렇지요. 알긴 아네요!"라며 순간 나도 웃음을 터트리며 선물을 건네받았다. 다행히 내담자는 상담자가 쏟아낸 강한 일침의 의미를 알아들었는지 꽁한 마음을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상담자에게 추석선물을 주면서도 아버지에게 대한 죄책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행한 일이었다.

추석명절을 지낸 다음 내담자가 다시 상담을 받으러 왔다(29회기). 이때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에게 상담선생님이 자기를 짐승 취급하더라는 말은 차마 하지를 못하고, 울면서 아버지를 버린 것 아니냐며 왜 함께 살지 않느냐고 말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였단다. 그러자 어머니는 옆에 있는 남동생에게 "너도 이상하게 여기니?"라고 묻으시더란다. 그러자 남동생이 자기도 이상하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몹시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치면서 추석 때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서 나를 벌레 보듯 하는 면이 있어서……."라고 하였단다.

추석 명절날 내담자는 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너희가 뭘 안다고!"라며 자기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너무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트렸더니, 아버지가 절절매며 자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란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를 싫어해서 아버지를 안 거두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아버지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하는 식으로 부정

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식구들이 만났을 때마다 뭔가 신문에서 본 유식한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분위기를 영 깨트려버리곤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퍽 좋아해서 이담에 크면 아빠와 결혼한다는 말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인지 어려서는 아빠와 헤어질 때마다 펑펑 울었어요."(29회기)

이런 말을 하며 우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아버지의 아픔을 그나마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자식이 이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혼자 적적하게 살다가셨을 텐데 자식인 딸이 나서니까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고, 또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뭔가의 조취를 모색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버지가 비록 딸에게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얼마나 가슴 떨리게 딸이 고마웠겠느냐고 말하자 내담자는 더욱 크게 울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예요. 고맙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글쎄 어머니가 제가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잠든 줄 알고 제 몸에 손을 얹고는 기도를 하더라고요."(29회기)

내담자는 이렇게 말하며 크게 웃었다. 내담자에게는 이미 부모를 위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긍심 내지는 자신감이 배어나왔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내담자는 그 사이에 아들만 데리고 어렵게 살던 작은 삼촌이 심장마미로 돌아가셨다고 한다(31회기). 그러자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그냥 간단히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였단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아직 사촌 동생이 어리긴 하지만 그를 위해서라도 장례절차를 제대로 밟자는 주장을 하였단다. 그러면서 자기와 남동생이 결근을 하면서 빈소를 지키자 어머니도 와서 일을 돕게 되었단다. 그러자 큰삼촌이 자기를 무척 대견스럽게 여기더라고 했다. 때 마침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막내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들으라고 다음과 같이 크게 말을 하였단다.

"삼촌이 보기에 내가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 살아서 내 상실감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어른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남자들과 잘 지내지도 못해요."(31회기)

상담자에게 이러한 보고를 하는 내담자는 상당히 고무되어있었다. 그래서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많이 변했다고 격려하며 이번 일을 치루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내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즈음 어머니에게 뭘 사드리면서 띄어드리고, 그러다가는 조이고, 또 띄어드리고, 또 조이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는 끊임없이 집안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말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마저 겁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막상 하니까 되지요?"

"큰일을 겪으면서 용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제가 시골에 집을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서운한 점

이 많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젖소는 손이 많이 가니까 한우를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시골로 오게 해 고생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시로 나오셔서 시골로 출퇴근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사람 사는 게 별 것 아니고 가족 간에 정을 느끼고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했어요."라고 내담자는 응수했다(31회기).

내담자는 대단한 변화를 이룩하고 있었다.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하자 이렇게도 순식간에 성장하는구나 하여 나는 새삼스레 내담자를 바라다보았다. 상담자가 이러할진대 그의 부모 특히,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감개무량하였겠는가!

그 다음 주에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는 한층 더 고무된 면모를 보였다(32회기). 돌아가신 삼촌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탈장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나빠져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수술이나 잘 챙기라고 하고는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하였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안했는지 당신이 받은 립스틱을 자기에게 선물했다며 내담자는 밝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추진하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말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의 주 호소 문제가 이렇게 풀린 것이다.

2~3주가 지난 뒤 내담자는 근래에 아버지의 가치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며 눈물지었다(34회기). 아버지는 20살 때 돈을 벌기 위해 월남전에 파병으로 지원했다고, 회사에서 주는 빵을 먹지 않고 챙겨서는 동생들에게 먹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어느덧 아버지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록 어머니보다 민첩하거나 야무진 분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도리와 책임을 다한 속 깊은 분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버지상을 제대로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내담자에게는 전과는 달리 가족애가 짙게 배어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내담자에게 자긍심 내지는 사람에 대한 애정 등 많은 풍요를 자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찾음으로써 든든함 내지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논 의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안된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한다(장성숙, 2000). 특히 집단주의의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처럼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자아실현(自我實現)과 같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자가실현(自家實現)과 같은 공동체적인 성취를 더 추구하는 편이다(최봉영, 2007). 뿐만 아니라 집단의 가치기준을 자신의 가치기준보다 소중히 하며 인간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계주의의 문화를 발달시켰다(한규석, 2008). 이렇게 '우리성'을 근간으로 우리사회는 상황 맥락적 자아를 발달시키며 관계의 최우선성에 역점을 둔다.

상담에서 목표로 하는 적응적인 삶이란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조화를 의미한다. 현실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이고도 역

동적인 곳이다. 이런 곳에서 각 개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과 밖의 현실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비로소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역동 상담이라고 명명된 접근에서는 사람을 더불어 사는 관계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실존하는 현실에서 내담자가 주인공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것에 최대의 역점을 둔다.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두 가지 기본 골격을 강조한다. 하나는 상담의 초점을 당면한 문제에 두는 **'상담의 현재화'**이고, 다른 하나는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적극 개입하는 **'상담자의 어른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두 번째인 상담자의 어른역할은 현실역동 상담의 7가지 특성(① 문제의 실체파악, ② 심정 헤아리기, ③ 외부현실 강조, ④ 역할을 중시하기, ⑤ 직면 활용, ⑥ 부모-자녀관계 중시, ⑦ 사회성 촉진)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현실역동 상담의 중추적 개념이다.

실제 상담에서 상담자의 주된 역할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것의 해결방안에 대한 안목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자체에 대한 이해 및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만약 과거의 상처가 걸림돌이라면 그것을 희석시켜주면 되지만 현재의 당면한 사안이 문제일 경우에는 상담자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판도가 확 확 달라지게 마련이다.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담자에게 일러주어도 내담자가 좀처럼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다. 저항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상담에서 추구하는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씨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심정을 깊숙이 헤아려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을 갖고 호소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싶을 때는 직면을 통해 야단을 치거나 부끄러움을 자극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역할을 소화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다.

더구나 한국은 우리성에 기초한 문화를 이룩한 사회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능력을 매우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주변과의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그의 적응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 증상의 완화를 돕는 치료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양육자 내지는 교육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일컬어 어른이라고 하는데, 상담자를 찾는 한국인 내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을 상담자에게서 찾고자 한다. 상담자가 그런 어른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어른을 숭상하는 문화를 발달시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어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어른이 지도편달 해주기를 바란다. 어른의 반열에는 부모를 비롯해 스승이 나 성직자가 있고, 나아가 마음을 다스려주는 상담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어른의 대표적인 인물은 어디까지나 부모다.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어른의 상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를 꼽는다(조긍호, 2006). 추상같은 호령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역할과 자애로운 보살핌을 펴는 어머니의 역할을 겸비한 사람이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인

데,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담자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골격인 '상담자의 어른역할'이 실제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의 실제에 있어서 상담자의 어른역할은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변화를 모색하게끔 설득하며 호소하고, 아니다 싶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칠 수 있는 태도라고 본다(장성숙, 2007).

앞에 예시한 사례에서 내담자가 부모의 거취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그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자 내담자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상담자가 꺼내자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러나 마침내는 수긍을 하며 그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상담자가 사리에 맞는 언급 즉, 우리 문화권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언급하자 내담자는 부담을 느끼긴 했어도 거역하지는 못하고 따랐다.

그러나 부모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할 때 마침 계기를 포착한 상담자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내담자를 짐승으로 취급함으로써 내담자를 자극시켰다. 사람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말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호되게 직면을 당하자 부끄러움에 귓불까지 빨개진 내담자는 그 길로 부모의 거취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자신의 역할에 탄력을 받아갈 무렵 때마침 작은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내담자는 집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여 중요인물로 부상하자 내담자는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가지고 왔던 문제인 결혼을 추진하기로 마침내 결심했다. 나아가 그는 아버지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취약했던 자신감 내지는 든든함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담성과는 미처 내담자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초보 단계의 상담자가 주로 하듯 반영이나 공감 위주의 상담을 넘어서서, 또는 그 보다 좀 더 나은 단계에서 주로 하듯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식의 상담을 넘어서서, 내담자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방향모색을 하거나 과감한 개입을 하는 식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상위 단계의 개입 방식이라고 본다. 그 결과 내담자는 본인 자신도 신바람이 날 정도로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잡아갔고, 자신감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상담자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상담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주장을 한다(장성숙, 2002). 뿐만 아니라 한국인 내담자는 어른을 숭상하는 문화로 인해 상담자가 그러한 어른으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하는 편이라고 본다. 이러한 주장이나 견해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과연 누가 그렇게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젊은 상담자들은 연륜의 부족으로 그러한 어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우려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하여 현실역동 상담에서도 상담자 교육에 대해서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은 상담자의 직업윤리와도 관련된 것으로 아무나 상담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함부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상담자 역시 남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종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내담자에게 무해(無害)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업에 임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상담자는 적어도 보편적 가치 즉, 상식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장성숙, 2002).

참고문헌

이정모 (1995a).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기본 가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심리학 동계연구세미나 초록. 197-249.

이정모 (2009).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561.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23-537.

장성숙 (2008). 상담사례 과정에 반영된 현실역동상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49-365.

장성숙 (2009). 문제 직시가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 방식'에 기초한 보고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4), 529-546.

최봉영 (2005). 한국사회의 차별과 억압. 서울: 지식산업사.

최봉영 (2007). 한국어로써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 아시아철학자대회, 6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최봉영 (2007). 한국사회의 가족문화. 제 8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가족주의와 상담의 관계, 7-22.

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마음의 문화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281-307.

Bickhard, M. H. (1992). Myths of science: Misconceptions of science in contemporary psychology. *Theory & Psychology 2,* 3, 321-337.

Corey, G. (2009).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8th Ed.). Cengage Learning.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이근배 홍영근 공역 (2010). 심리 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Fauconnier. G., & Turner, M. (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ties*. Chiho Publishing House. 김동환, 최영호 공역(2009).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양: 지호.

Friedberg, R. D., & McClue, J. M. (2002). *Clinical practice of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Lieblich, A., McAdams, D. P., & Josselson, R. (Eds.) (2004). *Healing plots: The narrative basis of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hear, A. (1989).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ce*. Oxford Univer. Press. 신중섭 역.

현대의 과학철학 입문. 서광사.

Pedersen, P. (1991). Multiculturalism as a generic approach to counseling. (Special Issue on Multiculturalism as a fourth force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opment,* 70, 6-12.

Salmon. W. C. (1989).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P. Kitcher & W. C.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3-219)

Shweder, R.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chmidt, F. J. (1996).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and cumulative knowledge in psychology: Implications for training of researchers. *Psychological Methods, 1,* 2. 115-129.

Sue, D. W., & Sue, D. (1999). *Counseling th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논문투고일 : 2010. 06. 03
1 차심사일 : 2010. 06. 21
게재확정일 : 2010. 07. 19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10, Vol. 16, No. 3, 311～329.

The Influence of an Elder's Role of Counselor on Counseling Result
- Reporting Style Based on 'Story Making Methods' -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t is necessarily for a counselor's role to vary according to the cultures. While an autonomy is stressed in Western horizontal society, sociability is emphasized in Korea which is a vertical authoritarian society. What is more, a lot of people look to a counselor for elder's role as a teacher or a fosterer as well as a therapist. The two basic framework of Reality Dynamic Counseling which has been developed as a counseling approach for Korean are 'presentization for problem' and 'elder's role of a counselor'. An elder's role of counselor showed in real counseling case is illustrated by 'narrative methods' in this study. The 'story making methods' a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s more useful than a protocol method which has been used in studying counseling case, because it has conciseness for original text of dialogs and commentary for counseling process. The seven characteristics of Reality Dynamic Counseling such as grasping the real cause, understanding mind,, emphasizing interpersonal factor, emphasis on role, utilizing confrontation,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and facilitating sociability are reflected in such an elder's role of counselor.

Key words : sociability, a fosterer, an elder's role, story making methods, Reality Dynamic Counseling